



보도시점 2026. 10. 20.(화) **배포 시** 배포 2026. 10. 20.(화)

전통주 산업 발전을 위해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전통주 온라인 판매경로 다변화 등을 고려하여 통계체계 보완 및 판로 확대 지원

< 주요 보도내용 >

10월 20일(화) 국민일보, 「전통주 온라인 판매 4년 새 59% 급감...시장 규모도 파악 못한 정부」 기사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9개사의 전통주 판매액이 2021년 1,397억 원에서 2025년 576억 원으로 58.8% 감소하였으며, 농식품부가 조사한 2021년 온라인 판매액은 251억 원에 불과해 정부가 시장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기사에 인용된 전통주 온라인 판매액과 농식품부 조사 통계는 조사 대상과 집계 범위가 달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농식품부의 「주류산업정보 실태조사」는 전통주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출고 실적과 판매경로 등을 조사한 것으로, 2021년 온라인 판매액 251억 원은 조사에 참여한 178개 업체의 직접 온라인 판매실적을 집계한 수치입니다.

반면, 기사에 인용된 1,397억 원은 주요 온라인 플랫폼 9개사가 제출한 판매실적을 합산한 것으로, 양조장뿐 아니라 주류도매업자 및 온라인 전문 판매업체 등의 판매실적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유통경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시장 현황을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 체계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판매실적 감소를 전통주 온라인시장 전체의 급격한 위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전통주는 주요 종합 온라인 플랫폼 외에도 전통주 전문몰, 양조장 자체 쇼핑몰, 지역 농특산물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판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에 인용된 일부 플랫폼의 판매실적만으로 전체 온라인시장이 4년간 58.8% 감소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내수경기 둔화와 음주문화 변화 등으로 전체 주류시장이 위축되고 있으나, 전통주 산업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5년 전체 주류 출고액은 전년 대비 3.6% 감소한 반면, 전통주 출고액은 6.2% 증가하였습니다.

* 전체 주류 출고액(억 원): ('19) 89,413 → ('22) 99,703 → ('24) 100,575 → ('25) 96,954

* 전통주 출고액(억 원): ('19) 531 → ('22) 1,629 → ('24) 1,374 → ('25) 1,459

농식품부는 전통주 온·오프라인 판로 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소비촉진을 위해 전통주 갤러리 2호점(두타몰, 7월) 개장, 2026년 품평회 수상작 바이어 대상 시음회(9월)를 추진하고, 코레일 스토리웨이 편의점 및 주요 역사 팝업스토어 운영을 준비하는 한편, 인천공항 정책면세점과 대형마트·백화점 입점 등을 통해 오프라인 판로를 다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2026년 대한민국 우리술 품평회 수상작 18개 제품을 중심으로 네이버쇼핑, 카카오톡 선물하기 배너 광고 및 GS 온라인 앱 입점 등을 지원하여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2026년 11월 13일(금)부터 15일(일)까지 개최되는 「2026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를 통해 2026년 품평회 수상작 포함 전국 전통주의 전시·시음·판매와 온·오프라인 연계 홍보를 강화하여 전통주 소비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식품산업정책관	책임자	과 장	유재형 (044-201-2151)
	식품외식산업과	담당자	서기관	허창각 (044-201-2136)

